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현판식 · 간담회

중소기업청, 향후 3년간 기술사업화 R&D지원... 정책자금 · 보증 · 수출 등 연계지원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난 13일 오후 중기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이하 초격차 프로젝트)에 새롭게 선정된 지역 스타트업들과 함께 '2025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점 과제인 '초격차 프로젝트'에 전북 지역 (주)모나 등 6개사가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지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스템반도체, 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을 선도하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닥터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정하고 집중 지



원하여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다.

지난해까지 총 407개사를 선정해 육성했으며, 올해는 일반공모를 통해 13.7:1의 높은 경쟁률을 뚫은 182개사

와 기존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지원받은 스타트업 중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뛰어난 스타트업 15개사까지 총 197개가 새롭게 선정됐다.

올해 전북에서는 모나(주)(미래모빌리티 분야), (주)파에이아이(AI·빅데이터 분야), (주)트(로봇 분야), (주)오이스텍, (주)에이스인벤터, (주)에이비랩(이상 친환경에너지 분야) 등 총 6

개사가 신규로 선정되었다.

초격차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 기업수요에 따라 최대 6억원의 R&D자금 등 총 12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대기업 등과 협업,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중기청 전세희 청장은 "작년까지 이 프로젝트에 선정된 전북지역 스타트업이 2개사에 불과하였으나, 올해는 6개사로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가맥축제와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문화 홍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전주가맥축제, 현대백화점과 협약

전북도 문화 홍보 · 소상공인 판로 지원 등 상생모델 구축

전주가맥축제와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문화 홍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이하 경진원)은 지난 6월 12일 지역 상생과 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경진원-현대백화점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와 식문화 기반 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상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한 공동 사업 발굴·운영 협력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연

계를 위한 지원 협력 △지역 전통 식문화와 가맥 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 협력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공동 과제 등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전주가맥축제' 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오픈해 축제 브랜딩 강화와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힘을 예정이다.

유통연구가 많은 현대백화점 더현대, 신촌점, 목동점, 판교점 등을 대상으로 전주 대표가맥업체가 직접 참여해 안경거리를 선보이고 축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해준 현대백화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 공동주택

주부모니터 5기 29일까지 모집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고객 중심의 새로운 주거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부모니터 5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부모니터 5기 모집은 전북특별자치도내 거주하는 30세이상 80세미만 주부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2주간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 후 선발하고, 선발된 주부모니터는 향후 2년 동안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의 설계 참여 및 품질점검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에 안내되어 있다.

한편, 주부모니터 4기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및 만성 A-2BL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전 품질점검을 실시했고, 익산 부송지구 B블록 공공주택 설계에도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앞으로 선발된 주부모니터 5기 또한 마감공정 품질점검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적극 참여함으로써, 꼼꼼한 주부의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품질을 개선하여 전북도민에게 소비자 맞춤형 아파트를 공급하고 하자 민원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탄소산업진흥원, 지역 기관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사례 전파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서 인공지능 활용 업무 효율성 개선 방안 전문가 초청 세미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최근 기술교육센터 3층 대강당에서 제6차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세미나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자치도 내 행정 및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 사례와 빅데이터 기술 트렌드 공유를 통한 지역 내 디지털 혁신 추진을 목표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호 사무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소개'를 시작으로 실무 중심의 인공지능(AI) 도입 사례와 솔루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수연 인턴이 최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도입한 Open WebUI 기반 사내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공기관 내부 업무 지원용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주)클라우드라 김호중 전무는 '엔터프라이즈 AI를 위한 클라우드 AI 플랫폼'을 주제로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역량의 중요성을, (주)라썬 정경진 매니저는 'AI 기반 문의/응대 혁신방안'을 주제로 민원 대응 및 고객지원 영역에서의 생성형 AI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공유했다.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는 전북지역 내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0년부터 지역 공공기관들과 지자체·민간·학계 등이 모인 협의체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2023년부터 참가해 도내 30여개 산하연과 함께 실무사례 공유 및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 등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경민 원장 직무대행은 "지역 주력산업인 탄소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 하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기관의 경영 혁신을 넘어 산업 혁신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어촌공, 상반기 건설현장 위기대응훈련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동인)는 최근 고창군 신탐면 기초생 활거점조성사업 현장에서 2025년 상반기 건설현장 위기대응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반영하여,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위기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유관기관 보고, 현장보존, 사고대책회의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숙지하고 실행하며 위기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본사 안전혁신실 건설안전부, 전북본부 안전관리센터, 고창지사 공사감독, 시공사 및 현장 근로자 등 총 13명이 참여했으며,

화재 발생부터 응급조치, 상황전파, 병원이송, 유관기관 신고, 사고대책회의까지 위기대응 전 절차를 실제처럼 시연했다.

김동인 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디자인센터, 디자인기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 전북 디자인센터(센터장 유종길)는 지난 12~13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기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디자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 디자인 산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회계 등 실무 중심의 사업관리 교육과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도내 디자인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센터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디자인산업은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다.

이에 전북디자인센터는 단순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디자인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디자인기업 등록제도를 도입해, 도내 디자인기업의 정보



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기업 홍보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유종길 전북디자인센터장은 "전북 디자인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북디자인센터는 지역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목표로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